



항일독립운동여성상 '혁명전야'

2019.12.13. 충청남도 홍성 홍예공원 건립

# 항일여성

8호 | 2019. 12.

(사)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충남의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박원희**(1898~1928)

- 외손녀를 만나고서

본회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신영숙**

30세의 요절  
한 점 혈육 딸이 있었는데

열혈 운동가 박원희!  
학교에 안 보내주는  
어머니에게 단식투쟁  
경성여고보 사범과 졸업  
철원에서 교직 생활 후  
일본 유학 가서  
말 그대로 주경야독

남편 김사국과 함께  
간도에서 청년교양운동  
여성의식향상과 민중계몽  
사회주의 이론은 투철했고  
누구보다 자신만만했다  
“철같이 굳은 의지  
거울같이 맑은 정치적 지식”  
몸 사리지 않는 실천가  
샘솟는 열정과 자긍심

단지 5년 여 결혼 생활  
항일투쟁 위해  
중국으로 만주로 다니던  
1926년 남편의 병사 후  
그의 몫까지 감당하다  
1년 6개월 만에  
몸살 같은 대단찮은 질환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멀고 먼 훗날 2000년  
애족장 수여 받고  
남편과 합장되어  
애국열사묘에 묻혔다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  
조선여성동우회 조직하고  
경성여자청년회 주도하고  
통합조직체 근우회까지  
때로 힘을 모으고  
때로 갈려서라도  
민족 해방, 여성 해방  
항일 투쟁 선봉에서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돌볼 겨를 없이  
외팔 사건이를  
업고도 나풀나풀  
나비처럼 날아다니더니  
그리고 빨리  
그리고 가볍게  
순국하고 말았다  
시대를 뛰어넘는  
처절한 몸부림  
아낌없이 다하여  
참세상 좋은 세상  
못다 한 꿈 뒤로 한 채

남편 사국(思國)과

시동생 사민(思民)  
외팔 사건(史建)  
모두 새로운 국민국가  
바른 역사 세우라는  
부모님 이어서 2남 5녀  
오늘을 잘살고 있다.

시대의 아픔이요  
민족과 여성의  
크나큰 손실  
그 죽음 앞에  
전국의 방방골골  
크고 작은 사회단체  
남녀동지, 선후배들  
몰밀 듯 밀려와  
서러움과 억울함  
애통함이 사무쳤다

여성 인물로  
최초의 34개  
사회단체연합 장례  
당파를 넘어서  
항일 민족 독립 염원의  
하나 된 힘에  
잠시라도 작으나마  
쉬어갈 수 있었으려나  
이듬해 1주기까지  
그 후로도 길이길이  
그의 안식을 빌어주리라

- 지난 12월 13일 충청남도의 항일독립운동여성상 ‘혁명전야’ 건립 제막 행사에서 박원희 지사의 6번째 외손녀 김영숙 님을 만났다. 덕분에 본래의 시(『여성이 여성의 노래하다』의 「박원희」)를 축약 보완한 것이다.
- 사진은 생전의 박원희가 딸 사건을 안고 있는 모습 : 『중외일보』 1928년 01월 07일

## 목차

- 04 인사말 이사장 김희선
- 06 〈좋은 도구〉 오수환(제2회 항일 역사 랩대회 대상 수상자)
- 07 〈중국에서 활동한 한국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  
(본회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위원 이선이)
- 09 울릉도-독도 답사 및 성명서 발표 - 독도탐방기(편집위원 김수미)
- 12 제1회 항일 역사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
- 13 의열단 100주년 기념 세미나 : 항일 부부독립운동가의 사랑과 투쟁
- 14 항일독립운동여성상 건립 제막 행사
  - 항일독립운동여성상 건립 제막식
  - 충남 항일여성독립운동가 학술심포지엄
  - 충청남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회
- 18 〈100년전 발자취 여기, 오늘 예술학도로서 동경을 걷다〉  
(청년미래분과 위원 이동준)
- 20 사업 소식
- 22 광주전남지회 소식
- 23 충남지회 발족
- 24 연대 활동
- 29 후원 회원 명단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통권 8호 발행인 김희선 편집위원 김수미 김희선 박창식 송형중 신영숙 최교익 이은주

발행처 (025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3 (용두동 232-20) 사숙재회관 402호 디자인 인쇄 디자인포인트

후원  수협  KEB 하나은행  DROPTOP

- 후원안내 / 회원가입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01-0230-6110-11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가입문의 : 전화 02)924-0660 메일 herstory@herstorykorea.org  
카페 <https://cafe.naver.com/herstory0301>

홈페이지 <http://www.herstorykorea.org/>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erstorykorea/>

## 인 사 말



이사장 김희선

### “♫ 산에 나는 까마귀야 시체보고 우지마라 날은 지고 나무 밑에 쓰러진다 혁명군아 ♫”

73년이 지난 지금도 내 머릿속에 박혀 또렷하게 떠오르는 이 노랫말!

이 노랫말은 <김학철 평전>에 나오는 것이다. 이 책을 읽다가 참으로 놀랍게도 내 입 속에서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졌다. 우리 어머니가 스물 대 여섯 살이셨을까? 해방이 되자마자 김구 선생님과 김학규 할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심양에 들어가신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 내 어머니께서 나를 등말을 태우고 방바닥을 닦으실 때 남편인 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부르시던 노래였다.

그 서너살 먹은 어린아이 머릿속에 노랫말이 얼마나 박혔으면 73년이 지났음에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다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연치 않게 책을 정리하다가 내 고모님 김일신이 《신앙세계》에 당신 부모님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야기를 인터뷰 하신 것을 읽게 되었다. ‘3.1혁명을 맞아 기억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대답하신 것으로, ‘선우휘’라는 성을 가진 내 증조할머니(고모님의 할머니)께서 내 할아버지 김성범(고모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한 것이었다.

이 글을 대하니 문득 2005년 경의 일이 떠오른다. 내가 16, 17대 민족정기 국회의원 모임 회장을 활동할 당시, 광복회에서 최초로 708명의 친일파 명단을 찾아내어 그 중 700여 명의 친일파 명단을 거국적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그 중 16명의 명단을 발표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일었는데, 그 16명의 후손들이 문제제기를 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내가 민족정기 국회의원 모임에서 공개한 것이다. 그러자 모 일간지에서 내 아버지를 친일파 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공격했다. 그러나 세상에 거짓이란 어디서나 언제든지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런 스토리가 단순 개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든다.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치열했던 구국투쟁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과연 얼마나 큰 용기와 자신감으로 대처했을까 하는 물음을 갖게 한다. 그들의 그 피어린 삶을 잊지 않고 후세대인 우리들이 지켜가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사명이라 하겠다. 그 사명은 ‘오늘의 역사요구에 답하는 실천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짐으로써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항일투쟁사는 과거역사만이 아니다. 그 투쟁정신은 미래사회로 향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역사의 발걸음이라 하겠다.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를 발족할 시기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돌아본다. 미래세대에 무엇을? 왜? 전달하여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젊은이들이 역사를 고민하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연 본회가 지금 후세대에 역사의 거울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한다.

이번 충청남도 항일독립운동여성상 ‘혁명전야’의 건립도 이런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12월 13일 독립운동의 메카, 충청남도 홍예공원(홍성 예산)에 항일독립운동여성상 ‘혁명전야’를 세웠다. 앞으로 한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독립투쟁사를 늘 기억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높이는 데 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리라 기대한다.

이번 제막 행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님, 이남일 대전지방보훈청장님, 함세웅 목사님께서 ‘혁명전야’의 건립으로 충청남도가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축하해주셨다. 충남의 역사문화 단체, 그리고 충청남도민들의 많은 축하와 격려 속에서 항일독립운동여성상 ‘혁명전야’가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항일여성들의 목숨 바친 희생은 곧 우리의 현재이고 역사”라는 건립 취지문이 그저 글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들이 항일여성독립운동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본받으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본회 송형중 대표께서 이번 제막식을 위해 충남을 오가며 열정적으로 일해주셨으며, 신영숙 소장님도 충남 학술심포지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시어 행사를 더욱 알차게 해주셨다. 앞으로 항일 독립운동여성상 ‘혁명전야’를 전국의 의미 있는 장소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독립운동이 있었던 곳, 쿠바, 멕시코, 하와이 등 항일독립운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세계 각지에 ‘혁명전야’를 세워 항일여성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소중한 다짐이 있다. 미래가 있는 젊은이, 역사를 멀리 볼 수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 세대는 쉬지 않고 해야 하며, 또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항일독립운동여성상 ‘혁명전야’의 건립이 그 질문의 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좋은 도구

### 제2회 항일 역사 랩대회 대상 수상자 오수환

"랩 뮤직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만 쓰다  
면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부  
정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악영향  
을 끼치게 될 것이다." - 제임스 브라운

필자는 올해 4월에 전역했다. 1년 반이 조금 넘는 군복무 기간 동안 랩을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장병들이 그렇듯 어디라도 좋으니 여행을 떠나고 싶었는데, 웬지 그렇게 대책없이 떠났다면 기대해 비해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아 여행에 컨셉을 하나 부여하기로 했다.

'소비하는 여행이 아닌 창조하는 여행을 하자는 것'

창조하는 여행을 위해 여행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프리스타일 랩을 하며 전국에서 랩을 하며 소비보다는 창조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고, 그 과정을 카메라 안에 담아내어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제작해보기로 했다. 전역 후 이 계획을 위해 여기저기 발품을 팔며 제작지원을 받기 위해 애쓰던 중 우연히 항일역사랩대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평소 랩 음악은 폭력적이고 부정적이기만 하다 여기는 사회의 편견이 달갑지 않았기에 역사와 명확한 주제의식을 담은 가사를 써 보고 싶었지만,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고 사회 문제란 예민한 것이라 생각해 선부르

게 건드릴 수 없다 생각했기에 그런 가사를 자주 쓰지 못한 내게 항일역사랩대회는 공부하고 새로운 가사를 쓸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주었다. 아마 필자와 함께 대회에 참여한 많은 래퍼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항일역사랩대회처럼 힙합과 다른 분야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많아진다면 더욱 긍정적인 현상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를 비롯한 래퍼들은 가사를 쓰기 위해 도서관과 자료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역사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들을 접하며 시간을 초월해 내 안을 공명시키는 뭔가를 느낄 수 있었고, 필자의 경우엔 그 공명을 권기옥 여사의 이야기를 빌려 랩 가사로 옮겨 대회에 참여했다.

대회 당일엔 인상깊은 장면이 정말 많았다. 세상에서 가장 개성있는 문화인 힙합을 하는 래퍼들이 자신들이 거리에서 입던 옷 차림대로 나와 진지한 표정으로, 때로는 유쾌한 모습으로 각자 공부를 통해 느낀 각자의 역사의식과 각자를 공명케 한 것을 거리의 언어로 멋지게 풀어내준 것도 정말 멋지고 신선한 장면이었으며, 래퍼들이 노래하는 방식이 낯설었을 수도 있는 연령층이 높은 관객들이 래퍼들이 하는 말을 최대한 알아들으려 집중하고, 공감해주는 모습 또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

연령대와 추구하는 문화는 달라도 이들은 같은 관심사와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표현 방식의 벽을 넘어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소통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나는 랩 음악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많은 생각할 여지를 남겨준 대회가 끝난 후 몇 달이 지난 뒤, 나는 마이크를 메고 그토록 떠나고 싶었던 힙합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하며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고시생 같은 마음가짐으로 랩을 하는 래퍼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자신들의 동네에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힙합을 실천해나가는 이들을 만났고 그들과 랩을 나누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회를 통해 랩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필자는 파괴의 수단으로서 랩만이 아닌 사랑과 화합을 위한 힙합 문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인터넷에 다큐를 공개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 이게 단지 나만의 희망은 아니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항일 역사 랩대회를 통해 그 동기와 원동력을 얻을 수 있어 기뻐다.

자극적인 거짓이 주목받는 시대라지만, 여전히 진실의 힘을 믿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저 진실을 말하며 좋고 따뜻한 것을 주면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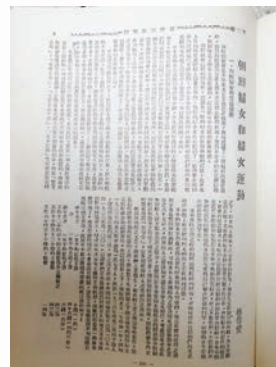
## 중국에서 활동한 한국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

본회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위원 이선이

이윤옥의 『여성독립운동가 300인 인물사전』(열레빗, 2018)에 실린 여성독립운동가 300명의 활동지역을 분석해 보면 그 중 81명이 중국으로 건너가 활동하였다. 식민지 조선을 떠나 항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나간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당시 어떠한 기록을 남겼을까? 그들이 남긴 기록에는 당시 중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던 이들의 정세 인식이 담겨 있어 흥미롭다.

김원봉의 아내이자 의용대 부녀복무단 단장이었던 박차정은 중국국민외교협회의 요청에 따라 한커우 무선방송국(無線電台)에서 일본어로 대일 선전 방송을 하였다. 이 강연원고를 특별히 중문으로 번역하여 게재한 것이 「일본의 혁명대중에게 알린다(警告日本の革命大衆)」(『朝鮮民族戰線 創刊號』, 1938년 4월 10일) 박차정은 이 글에서 일본의 중국침략전쟁은 “경제공황과 정치 모순 극복을 위한 전쟁으로 일본 노동대중의 기아상태를 개선하지 못하며, 소수자본가 및 파시스트 군벌의 이윤을 증식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일본의 혁명민중들은 이를 명확하게 알고 들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박차정은 같은 『朝鮮民族戰線』에 「조선부녀와 부녀운동(朝鮮婦女和婦女運動)」(『朝鮮民族戰線 第三期』 1938년 5월 10일)과 「조선부녀와 부녀운동 속편(朝鮮婦女和婦女運動 續)」(『朝鮮民族戰線 第五六期 合刊』 1938년 6월 25일)을 각각 실었다. 이 글에서 그는 “조선의 사회는 정상발달궤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형적 발전 과정을 경과”하였으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강제적으로 자본주의화 과정으로 나아간 반봉건적 사회”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선사회의 특수성은 조선의 부녀를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고 참혹한 환경으로 내몰았다”. 따라서 “조선의 부녀운동은 전 민족의 해방운동”과 동시에 발생하였을 뿐아니라 “전민족해방운동과 더불어 발전”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국의 전면항일은 중국민족생존을 위한 방위전이자 동방피압박민족의 해방 투쟁”이기 때문에 “우리혁명부녀는 일치단결하여 신성위대한 민족 해방투쟁에 참가하여 조국의 자유와 ‘동아의 평화, 인류정의를 위하여’ 싸워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차정 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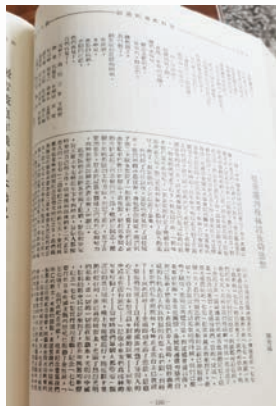
박차정 자료 2

박차정의 글이 실린 『朝鮮民族戰線』은 1937년 12월 조선민족혁명당·조선민족해방자동맹·조선혁명자연맹(일명 조선무정

부주의자연맹)·조선청년전위동맹 등 4개 단체가 참가하여 결성한 좌파계 항일 민족연합전선인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기관지이다. 연맹은 1938년 10월 10일에는 한커우에서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였다. 조선의용대는 『조선의용대 통신(朝鮮義勇隊通訊)』과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을 선전지로 발간하였다. 유자명이 지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廣西省 桂林 東靈街 1號에서 1939년 1월 21일 『조선의용대 통신』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조선의용대통신 자료



장수연 자료

『조선의용대 통신』에 조선의용대 부사령관 겸 참모장을 지낸 박효삼(朴孝三)의 부인이자 부녀복무단 단원이었던 장수연(張秀延)의 글이 있다. 당시 중경에는 조선의용대를 후원하는 재중경부녀회(朝鮮旅渝婦女會), 3.1소년단(三一少年團), 여성훈련반(婦女訓練班)이 있었다. 그 중 '여성훈련반'을 졸업한 여성들은 전방으로 가고 싶어하였으며 장수연도 '가정의 굴레'를 떨치고 일어나 함께 하기를 바랐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러하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몇몇 여성들은 건강상의 문제와 그 밖의 곤란으로 중경을 떠나지 못하였으나 자신과 수운(秀雲), 화림(華林) 세 명은 강대한 결심을 하고 보통사람들의 감정을 극복하고 일체를 돌아보지 않고 전방으로 갈

것을 결심하여 중경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다(張秀延, 「從重慶到桂林以後的感傷」 『朝鮮義勇隊通訊』第18期(1939.7.11.)). 『조선의용대 통신』은 한중이 서로 연합하여 항일 작전을 올바르게 전개하기 위한 토론의 장, 경험교류의 장, 상호비평의 장으로 역할을 하였다. 장수연이 언급한 세 명중 한명인 이화림도 「왜 중국과 한국 양민족은 단결해야 하는가(爲什麼中韓兩民族要團結)」라는 글을 『조선의용대 통신』에 싣고 있다. 이화림은 이글에서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잔혹한 유린으로 중한 양민족 각자 내부의 모순과 마찰은 점점 사라지고 긴급하게 단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국내 열정적 조선혁명가들은 의용대의 깃발 아래 중국 항전의 최전선에서 피땀으로 강도(일본)과 싸우고 있으며, 이 싸움을 통하여 조선혁명역량도 강화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李華林, 「爲什麼中韓兩民族要團結」 『朝鮮義勇隊通訊』第22期, 1939.8.21.).

여기서 소개하는 3인은 모두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 단장과 단원이었다. 그들이 남긴 자료들을 통하여 보면, 1937년 노구교 사건이후 중일전쟁이 본격화되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연대가 필요불가결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여성의 해방은 조국해방, 민족해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울릉도 - 독도 답사

일시 2019.10.09.~10. 장소 울릉도, 독도

▼ 성명서를 낭독하는 청년들



▲ 뉘전춤

2019년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왜곡 등 일본 정부의 반성을 요구하고 항일여성독립군의 기상과 열을 독도에 전한다는 취지 아래, 다양한 세대를 대표하는 10명의 구성원이 함께 울릉도-독도 답사를 다녀왔다. 독도에서 성명서 <항일여성 독립군의 기상과 열 대한민국의 땅 독도에 새기노라!>를 발표함으로써 역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역사 왜곡에 지속적·다각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결의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독도탐방기

# 실천하는 정신으로 역사를 만들기 위해, 기록하는 자세로

편집위원 김수미

독도는 그 존재만으로도 애국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곳이다. 하늘이 허락해야 그곳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물살이 거칠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강릉항에 모여든 우리는 독도 입성을 기원하는 마음을 나눴다. ‘우리나라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동도는 동경 131도 52, 북위 37도 14 그리고 서도는 동경 131도 51, 북위 37도 14에 있다.’ 사전에 나온 지리적 설명이다. 언론에서는 연일 일본의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주장, 수출 규제, 2020년 도쿄올림픽 육일기 반입, 평화헌법 개헌 문제 등 지치지 않는 일본 극우파의 만행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정신이 이 시각에도 현재형인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의 자화상 우리의 목소리

10월 9일

강릉항 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한 배는 3시간 동안 파도를 탔다. 바다가 이끄는 대로 출렁이던 배는 흑독한 배멀리를 선사하며 결코 독도를 향한 여정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강릉에서 울릉까지는 쉬운 길이 아니었다. 힘들었다. 육체가 지칠 즈음 함께 하지 못 한 김희선 이사장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역사는 실천하는 자가 만들어 간다지요. 오랜 생각을 함께하진 못해도-‘항일여성’ 동지들의 그 의지가 있으니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역사는 실천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일여성의 정신! “독도! 조선땅” 그곳에 항일여성 정신의 역사를 뿌리 깊게 내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영광을 안고 무사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독도지킴이 자인하는 그대들에게 마음으로 함께하는 김희선 드림”**

응원의 문자는 의지를 새로이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2019년 올해가 3.1만세혁명, 우리나라 건국 100주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조국의 오늘은 독립정신이 요구된다. 출항하기 전, 단체 사진을 찍으며 펼쳤던 깃발에 새겨진 <항일여성 독립군의 기상과 열, 대한민국의 땅 독도에 새기노라> 문구를 상기했다. 우리가 독도를 향하는 이유, 우리의 자화상을 마주하고 만나는 시간이었다. 실천하는 정신으로 역사를 만들기 위해 기록하는 자세로 다녀오겠다 다짐했다.

울릉도에 도착해 숙소를 배정받고, 점심으로 출렁이던 속을 달래고 울릉도를 한 바퀴 돌았다. 코끼리바위, 삼선암, 사동항 등대, 관음도 등 가는 곳곳이 비경으로 눈을 잡고 마음을 흠뻑했다. 빼앗긴 마음을 따라 멈춰선 우리는 태극기를 높이 들고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낯선 곳. 태극기의 등장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며 자연이 주는 풍광을 의미화시키며 하나로 만들었다. 의지는 흥분을 낳았고 흥분은 설렘으로 갈아타면서 감동으로 전이 되었다.

## 10월 10일

독도결의 대회. 하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는 곳. 우리를 반기듯 날씨가 좋았다. 두 개의 큰 섬과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인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일반인의 입도를 제한해 오다, 2005년 정부방침의 변경으로 동도에 한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라는 건 이번 여행에서 알았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라고 한다. 독도를 지키고 있는 군인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 사람들은 여객선 앞창으로 독도의 형상이 보이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독도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었다.

입도와 함께 각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빠르게 진행했다. 준비한 추모문화제는 여성 독립군들의 넋을 기리는 ‘넋전춤’으로 독도의 얼을 깨우며 바람의 벼이 되어 노니는 깃발의 몸짓으로 그날, 그곳에 모인 산자를 불러 모았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처음인 사람과 사람 사이로 청명한 하늘이 하늘빛을 내려 이어주었다. 넋전 춤이 끝나고, 청년 미래분과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서 낭독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 수출규제, 2020년 도쿄올림픽 욕일기 반입, 평화헌법 개헌 문제 등 일본 극우파들의 악의 가득한 만행과 야욕의 폭거를 멈추라.’를 외치자 그곳의 있던 모두는 박수로 환영했다.

1945년 8월 15일은 한국인에게는 광복의 날이고, 일본인들에게는 패전의 날이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 극우 지배층은 자신들의 야욕 때문에 절대다수 일본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알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극우 일본을 향해 외친 우리의 결의는 현장에서 ‘좋다’라는 추임새로 화답을 받았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하나의 목소리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다. 성명서를 청년들이 낭독해서일까. 역사를 지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의무임을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 졌다. 내가 그러하듯 다른 이도 그러한지 추모제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독립군가를 제창할 때는 합창이 되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는 역사적 증거, 국제법적 증거, 지리적 증거, 실효적 지배증거로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극우 지배층은 도발을 멈추지 않는 그들을 향해, 짧은 머무름일지라도 짧은 역사를 깊게 박아 놓고 온 시간이었다.

돌아오는 길은 같이 한 사람들 마음속에 함께 만들어 낸 역사의 순간을 감동으로 기억하고 나누었다. 실천하는 정신으로 역사를 만들기 위해 기록하는 자세로 마음을 다해 기록한다. 항일여성 독립군의 기상과 얼을....

## 제1회 항일 역사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

일시 2019년 10월 16일 15:0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단체 사진



대상 수상자 박주희 <마리아에게서 온 편지>



금상 수상자 허나영 <오, 마리아>



은상 수상자 백시은 <정신> (왼쪽), 강건해 <너에게 달기를> (오른쪽)



수상 소감을 전하는 대상 수상자

제1회 항일 역사 시나리오 공모전은 영상세대인 아이들에게 시나리오와 영화를 통해 균형 잡힌 항일 역사를 전달 하겠다는 취지 아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전이다. 공모전 참가 접수는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약 3천여 명 이상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총 30여 작품이 결선에 진출 하였고 최종 심사를 통해 총 4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의열단 100주년 기념 세미나

# 항일 부부독립운동가의 사랑과 투쟁

일시 2019년 10월 16일 15:3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2019년 의열단 100주년을 기념하며, 여성의열단으로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항일여성독립운동가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박자혜, 신채호와 같은 부부독립운동가의 사랑과 투쟁의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주제발표** 〈항일 부부독립운동가의 사랑과 투쟁〉 - 박자혜·신채호 부부의 사랑과 혁명



발제자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토론자 이진옥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토론자 박창식 한겨레신문사 매거진랩 사업단장



토론자 위기훈 극작가, 한양대학교 연극과 겸임교수

## 충남에 서다! 항일독립운동여성상 '혁명전야'

2019년 3.1혁명 100주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101주년을 맞이하겠다는 다짐으로 충청남도 홍예공원에 항일독립운동여성상을 건립했다. 충청남도는 유관순 뿐만 아니라 김복희(아산), 김현경(공주) 등 많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으로 역사적 의미가 특별한 곳이다. 제막식, 심포지엄, 전시회 등 이번 제막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충남의 항일여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항일독립운동여성상 건립 제막식

**일시** 2019년 12월 13일(금) 11:00 **장소**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강당, 홍예공원

제막식에서는 뮤지컬 영웅 ost 〈그날을 기약하며〉와 〈대한이 살았다〉, 〈여로〉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인사말과 축하 뒤에는 항일독립운동여성상 미니어처전달이 있었으며, 여성상이 건립된 홍예공원으로 다같이 이동하여 제막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에게 '혁명전야' 미니어처를 선물하는 김화선 이사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의 인사말



항일독립운동여성상과 단체사진

## 충남 항일여성독립운동가 학술심포지엄

**일시** 2019년 12월 13일(금) 14:00 **장소**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1층 강당

충남 항일여성독립운동을 주제로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팀의 김종철 수석연구위원과 신영숙 본회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의 발표와 토론자(정을경, 문희순, 위기훈) 3명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조화벽, 유관순, 김현경 등 독립운동의 본고장 충청남도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했던 항일여성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단체 사진



심포지엄 전경

(왼쪽부터) 발제자 신영숙, 사회자 강정숙, 발제자 김종철, 토론자 문희순·정을경·위기훈

## 충남의 항일여성독립운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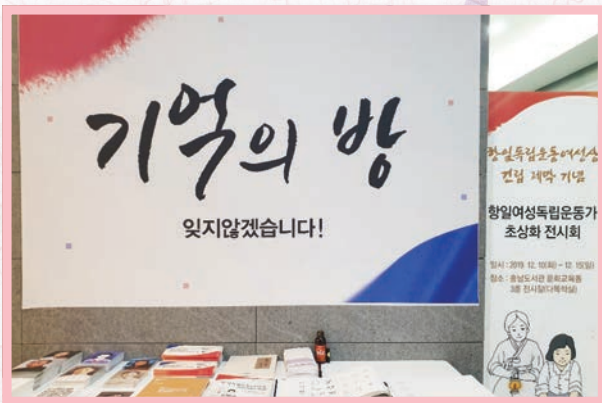
| 이 름 | 생몰년       | 본 적 | 활 동    | 비 고          | 포 상   |
|-----|-----------|-----|--------|--------------|-------|
| 유관순 | 1902-1920 | 천안  | 3.1 혁명 |              | 대한민국장 |
| 유예도 | 1896-1989 | 천안  | 3.1    |              | 애족장   |
| 정정화 | 1900-1991 | 연기  | 중국, 임정 | 군자금 모금 등     | 애족장   |
| 최정철 | 1853-1919 | 천안  | 3.1    | 아들과 같이 순국    | 애국장   |
| 이애라 | 1894-1922 | 아산  | 만주     | 남편 이규갑       | 독립장   |
| 한이순 | 1906-1980 | 천안  | 3.1    | 한도숙          | 애족장   |
| 최예근 | 1924-2011 | 서산  | 만주     | 군자금 전달, 연락 등 | 애족장   |
| 김인애 | 1898-1970 | 서천  | 3.1    |              | 대통령표창 |
| 김복희 | 1903-1987 | 아산  | 3.1    |              | 대통령표창 |
| 김현경 | 1897-1986 | 공주  | 3.1    |              | 건국포장  |
| 노예달 | 1900-미상   | 천안  | 3.1    |              | 대통령표창 |
| 민옥금 | 1905-1988 | 천안  | 3.1    | 민원숙          | 애족장   |
| 이소제 | 1875-1919 | 천안  | 3.1    |              | 애국장   |
| 박유복 | 1869-1919 | 천안  | 3.1    |              | 애국장   |
| 민임순 | 1913-미상   | 대전  | 학생운동   | 태화여학교        | 대통령표창 |
| 이은숙 | 1889-1979 | 공주  | 중국     | 남편 이회영       | 애족장   |
| 정귀완 | 1913-미상   | 대전  | 학생운동   | 경성여상         | 대통령표창 |
| 황금순 | 1902-1964 | 천안  | 3.1    | 황현숙          | 애족장   |
| 이수복 | 1911-미상   | 논산  | 학생운동   | 근화여학교        | 대통령표창 |
| 박원희 | 1897-1928 | 서울  | 근우회 등  | 대전출생, 김사국    | 애족장   |

※ 서훈자를 중심으로 정리

※ 표 작성 : 본회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신영숙

## 충청남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회

일시 2019년 12월 10일(화)~15일(일) 장소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3층 전시장



전시장 입구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수묵화로 그린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12월 10일(화)부터 충남도서관 3층 전시장에서 항일여성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전시했다. 항일여성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이어질 이번 초상화 전시회는 정정화, 유관순, 이애라 등 충남 출신뿐만 아니라 170여 명의 항일여성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수묵화로 그린 작품을 처음 선보여, 더욱 의미 있는 전시회가 이루어졌다.

## 韓·日 청년 교류 역사와 미래를 논하다!

일시 2019년 12월 20일(금) ~23일(월) 장소 일본 동경

젊은 예술인이 주축이 된 청년미래분과 위원들과 송형중(본회 대표이사) 단장이 동경을 방문하였다. 니혼대학교 연극과의 졸업 작품 관람과 더불어 후지사키 슈헤이 교수와 송형중 단장이 일본과 한국의 근현대사와 연극 그리고 예술에 대한 공동 특강을 진행하고 젊은 예술가들의 관점으로 보는 역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답사기

### 100년전 발자취 여기, 오늘 예술학도로서 동경을 걷다.

- 청년미래분과 위원 이 동 준

2019년 12월 20일 항일여성독립기념사업회 송형중 대표와 우리나라의 여러 연기와 학생들, 배우들과 함께 일본 도쿄로 떠났습니다. 니혼대학교 연극학과 4학년 졸업공연에 초청을 받아 공연을 보고 한국, 일본 연극과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일정과, 도쿄 재일본한국YMCA회관에 방문하여 100년 전 2·8독립선언의 성지를 공부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현재 분위기와 우리 모두 각자 역사의식이 강력하게 바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일본에 방문한다는 것은 마음이 편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 달리 니혼대학교 연극과 모든 재학생들과 후지사키 교수님께서 너무나도 환대를 해주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날 공연을 보고 일본에 있는 연극과 교수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에 동경연극대학연맹(니혼대학교, 오비린대학교, 타마가와대학교, 타마 미술대학교, 동명학원에술단기대학)교수님들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하여 연극예술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 양국의 미래에 대해 발전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양국의 역사의식이 다를 수도 있어서 살짝 경직된 감이 있었지만, 일본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나쁜 짓이 많아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큰데 이렇게 직접 방문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몸 둘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크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역사에 뿌리 깊은 반성의 태도가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한일 관계가 크게 발전할 수 있겠다는 굳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쪽에서 가볍게 준비한 선물을 그 자리에서 크게 감동을 받으며 바로 착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일 양국이 굉장히 가까워진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엔 첫날 공연을 했던 학생들과 니혼대학교 연극학부 학부생, 대학원생들과 함께 전날 공연에 대한 토론과 양국의 예술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우에하라라는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과거 일본이 저지른 만행이 있어서 한국인들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조심스러워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한일 양국의 학생들은 서로 마음을 조금씩 열어 진심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한국인 유학생 통역이 있었지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순간까지 다다랐습니다. 서로의 눈빛으로 강하게 공감하며 연극예술을 통해 양국이 조금 더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후지사키 슈헤이 교수와 송형중 대표의 공동 특강



YMCA회관 앞에서 단체 사진

학생들과의 교류가 끝나고 니혼대학교를 떠나, 재일본한국 YMCA회관에 갔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본의 심장 도쿄에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는 유학생들의 독립운동의 거점이 있다는 것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항일여성독립기념사업회 청년미래분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깃든 숭고한 정신과 결합하여 어떤 한일관계의 미래를 그려나갈지 고뇌하였습니다. 1910년 강제로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에 거주하던 유학생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비밀 회합을 거듭해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고 2·8독립선언을 시작으로 그 불꽃이 3·1혁명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5·4운동까지 영향을 끼쳐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키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일본의 수도 도쿄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시발점인 2·8독립선언의 성지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묘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독립운동의 본거지인만큼 일제의 탄압을 받아 여러번 해체의 위기를 맞고 해방이 되고 나선 쌓인 빚을 갚지 못해 경매의 위기까지 겪은 곳입니다. 온갖 시련속에서도 지켜온 이 건물을 앞으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해야 할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타국에서 싸워낸 용기와 숭고함을 감히 제가 헤아릴 순 없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지금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조금이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일본의 전통극 가부키를 일본의 국립극장에서 관극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극이 있지만 일본처럼 아직까지도 국립극장에서 매일같이 공연할 만큼 세계적인 인기가 있는 대중성을 갖추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잘 알아 들진 못하였지만 전통극이라고 할 만큼 특색 있고 짜임새가 잘 느껴지는 관극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행단 모두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조금 더 일본에 남아 그들과 더 교류하고 싶은 아쉬움과 현재 양국의 분위기, 그리고 양국의 젊은 미래세대 청년들이 연극예술을 통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기행(紀行)이었습니다.



니혼대학교 극장에서 니혼대 학생들과 단체사진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외물이된다

## 낙생고등학교 전시회

- 일시 2019년 10월 25일(금)
- 장소 낙생고등학교



▲ 초상화를 관람하는 낙생고 학생들



▲ 전시 전경

- 경기도 성남에 있는 낙생고등학교 역사동아리에서 <학생주도 역사탐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전시회를 통해 낙생고 학생들이 항일여성들의 얼굴과 활동을 기억 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2020년 달력 제작

- 2020년 새해를 맞아 달력을 제작하였다. 이번 달력에는 장하림 선생이 수묵화로 그린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와 함께 각 인물의 어록을 수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 2019년 제2차 상임이사회

- 일시 2019년 12월 30일(월)
- 장소 사무국

- 새로운 해를 앞두고 사무국에서 상임이사회가 진행되었다. 지난 2019년을 돌아보고 202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사회를 진행하는 모습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희선 이사장, 최성자 상임이사, 임선영 사무국장, 신영숙 상임이사, 송형중 대표이사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외물이된다

## 국내 항일독립운동 유적답사 - 항일의 섬 소안도

- 일시 2019년 10월 26일(토)
- 장소 완도 소안도

- 광주전남지회에서는 10월 6일(토)에 항일의 섬 완도 소안도로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어린이 포함 회원 등 25명이 참가하였으며 소안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대욱 회장님이 직접 안내와 강의를 해주셔서 참가자들은 큰 감명을 받고 돌아왔다.



## 2019년 제3차 운영위원회 및 송년회

- 일시 2019년 12월 10일(화) 오후6시
- 장소 상무옥

- 2019년을 마무리하는 제3차 운영위원회와 더불어 송년회를 진행하였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2020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20년 사업계획

### ● 조직강화 및 확대

- 회원 증모 운동 : 연중
- 운영위원회 워크샵 : 연 2회
- 분기별 운영위 개최 및 교육

### ● 연구 및 조사 발굴 체계 구축

- 전문역량 확보
- 본부와의 협력 강화

### ●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 항일유적답사 : 국내 2회, 해외 1회
- 전문가 특강 및 역사 강좌 개최



## 충남지회 발족

독립운동가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분들이 역사 속에 남기신 위대한 발자취는 지금도 우리에게 정신적 가치로 다가옵니다

개인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했던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이 보여주신 나라사랑의 큰 뜻이 후대에 길이길이 드높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 경 오**(충남지회장)

극단 젊은무대 대표로 공주연극협회지부장으로

20여년 충남. 공주연극인으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전통적이고 소중한 지역소재로

전국연극제에서의 금상 및 연기상 수상 등

그간 크고 작은 공연을 해왔지만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정의의 역사를 세우고자 오늘 이 자리

항일독립 충남지회를 준비하는 마음은 그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 자부심과 긍지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 2020년 충남지역항일여성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발굴할것인가?

우리역사. 우리지역 구석구석에 드러나지않고 사라져가는.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그 희생의 삶을 재조명하는데

역사의 시대적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 발맞추어 한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충남지회회원들은 극단 젊은무대 회원. 충남. 공주연극협회원 등

주로 충남각계의 예술인들과 일반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3.1혁명여성이 오늘의 여성에게 민족,자주 등불을 비추다”

올해 2019년은 3.1혁명에 이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범한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독립운동은 드러나고 밝혀지지 않았을뿐

우리역사구석구석에 묻혀있습니다.

서울에 이어 충남이 두 번째로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제막을 뜻깊게 생각하며 항일독립여성운동가의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미래를 잇는 혁명전야의 그 밤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잊지않겠습니다.



## 성명서

## 항일여성 독립군의 기상과 얼 대한민국의 땅 독도에 새기노라!

일본의 제국주의 극우파들은 듣거라!  
1919년 3·1만세 민족혁명의 정신을 촛불정신으로 계승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강제침탈, 첫 희생물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이제 전 세계 평화 사랑, 주권 회복의 상징이 되었다.

1904년부터 지금까지 115년, 계속되어 온 일본 극우파들은  
그 악의 가득한 만행, 야욕의 폭거를 멈추어야 한다.

일본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영유권 주장 도발!  
동아시아 강제 침략 역사 왜곡!  
일본 고대, 근현대 역사 날조!  
불공정 한일조약 청구권 강제!  
수출규제를 빙자한 무역 전쟁 도발!  
평화의 소녀상 강제 철거!  
후쿠시마 원전사태 축소 왜곡 보도!  
2020 도쿄올림픽 욕일기 반입!  
그리고 전쟁을 가능케 하려는 헌법 개헌까지!

그동안 윤희순, 오광심을 비롯하여  
많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대항해 싸우지 않았는가.  
그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건만 오늘날 일본의 행태가 가당키나 한가!

참된 역사의식을 가진 대다수 양심적인 일본국민에게 고개 조아려 사죄하고  
방만한 악행을 멈추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은 한국인에게는 광복의 날이요,

일본인들에겐 패전의 날이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극우 지배층은

자신들의 야욕 때문에 절대 다수 일본 국민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를 이어가며 제국주의적 야욕을 부끄러움 없이 키우고 있는

일본의 정치권 극우 세력은 각인 반성해야 한다.

혐오와 불공정, 왜곡과 날조, 반인륜 범죄로 가득한

아베 총리 내각의 정치 사욕은

자유와 평등의 올바른 세계질서 안에서 단죄될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극우파들의 수장 아베는 똑똑히 듣거라!

우리는 대한의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기상과 얼을 이어

너희가 올바른 역사 교육과 기록을 실천하는 그날까지

싸우고 또 싸울 것을 한반도 최동쪽 땅, 독도에서 고하노라!

2019년 10월 10일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성명서

##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강제 인상 요구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 덕분에 안보라는 혜택을 받는 것인가?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 미국의 손으로 세운 남한 단독정권!  
 우리 민족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한반도 분단!  
 그 역사와 함께 한 주한미군!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손에 쥔 주한미군!  
 종속관계도 모자라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국가적 갑질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6.25부터 지금까지 동북아 안보를 위한다는 빌미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은 독일 7만, 일본 4만!  
 그러나 전쟁 피해국 이 땅의 주한미군은 무려 10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한반도에 평화에 대치하는 행위이다!

더 이상 한미공조는 대미 종속외교가 아니다!  
 자유경제무역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미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건을 미끼삼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일본방위비에는 토지임대료를 포함시키고, 왜 한국토지는 무상 사용하는가?  
 일본의 전쟁 가능 헌법 개정으로 군사강국 의지를 비호하지 마라!

전 세계, 전 지구의 비핵화를 추진하라!  
 세계 평화를 위한다면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

미국은 솔개 막기 위해 불러들인 독수리 깃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사)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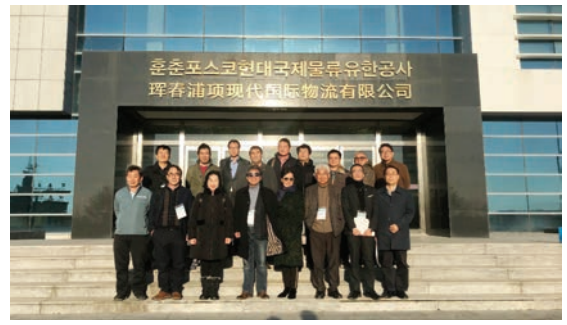
## ‘중국 연길’

## 민화협 『제7차 동북아 문화교류 국제학술회의』

• 일시 2019년 11월 7일~11일 • 장소 중국 연길



▲ 발표 중인 송형중 대표이사



▲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유한공사 민화협 전문위원



▲ 국제회의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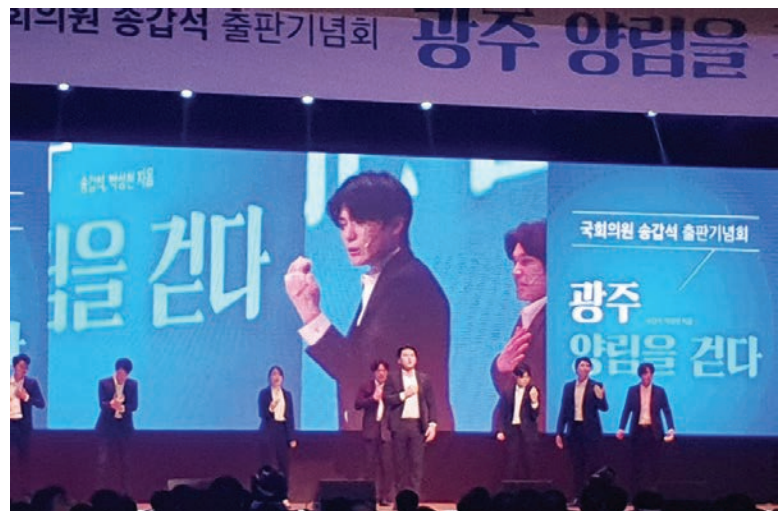


▲ 국제회의 전경

## 청년미래분과 공연 활동(국회의원 송갑석 출판기념회)

• 일시 2019년 12월 15일  
• 장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광주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송갑석 출판 기념회 <광주 양림을 걷다>에서 본회 청년미래분과 위원들이 공연을 진행하였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외물이 된다

## 의열단 100주년 기념 걷기대회

- 일시 2019년 9월 28일(토)
- 장소 서대문독립공원



## 광주 개최 제90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 일시 2019년 11월 3일(일)
- 장소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왼쪽부터) ▶  
박태균 광주지회 부회장,  
김희선 이사장,  
이낙연 국무총리,  
박정희 이사

##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100년 전의 함성 그대들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 ♥ 개인 회원 ♥

강성종 강영준 강원기 강정숙 국경복 김경미 김경순 김경실 김경옥 김광준 김광희 김기봉 김도연 김동민 김명연 김명옥 김명주 김명희 김미희 김민성 김병국 김병기 김병수 김보영 김복순 김삼열 김삼웅 김서경 김선경 김선현 김성호 김성훈 김세원 김소진 김수미 김순단 김시명 김우진 김옥미 김옥순 김옥이 김애영 김연옥 김영섭 김영조 김영주 김영훈 김예진 김완순 김운성 김운채 김윤경 김은미 김인호 김일옥 김일진 김자동 김정화 김종민 김종진 김지환 김지희(요가) 김지희(강변구) 김지희 김진현 김진후 김찬수 김창한 김태관 김태남 김현숙 김현태 김호근 김희선 김혜라 김행자 김행자(광주) 권성국 권태순 나유진 나종일 남궁련 남상만 남상혁 노다니엘 노명희 노영숙 노은미 노은영 노재훈 류효안 명 진 문병호 문성근 문시안 문인숙 문인철 문향숙 민경선 민향선 맹준재 박경덕 박경목 박국호 박금란 박남식 박선우영 박삼규 박소리 박순경 박영순 박운학 박윤옥 박은희 박원광 박장우 박정아 박정철 박정희 박종분 박진호 박제성 박재정 박재홍 박창식 박태관 박하은 박효은 박해숙 방국진 방승환 방영철 방지영 배기성 배성호 배우진 백소망 백정애 변경순 서병남 서보현 서찬휘 서쌍원 서인아 설 훈 성기흥 성세정 성현진 손덕수 손 윤 손태수 손희영 송보경 송주는 송아람 송현권 송현석 신명화 신수정 신상규 신영숙 신은영 신재남 신종근 신희주 심소라 심용식 안광진 안성례 안재준 안해영 안혁하 안희정 양경숙 양미강 양재원 양혜경 양호준 염락원 오상욱 오수민 오세홍 오여주 오우숙 오재호 오철의 오화자 유승희 유인경 유종일 유준상 유창우 유하영 유희준 윤여운 윤영전 윤인지 윤현식 이경순 이구영 이기탁 이길용 이덕일 이동준 이동철 이만열 이문석 이미경 이미희 이미희 이민석 이민재 이보나 이상택 이석문 이석현 이성구 이성래 이성철 이승환 이은경 이은주(문혜) 이은주(춧불) 이원표 이정기 이정숙 이정원 이정환 이종걸 이주한 이진규 이진석 이진숙 이재희 이찬희 이창민 이창현 이항중 이현민 이현주 이행자 이효식 이효재 이화섭 이혜경 이희수 임기상 임동건 임수빈 임순덕 임쌍금 임옥상 임용석 임은순 임정희 임준호 임진택 임현영 위기훈 장병화 장수인 장유식 장정수 장현호 전경미 전기호 전형진 정건하 정동익 정성호 정세균 정순영 정영진 정용설 정원채 정유경 정춘생 정춘숙 정택수 정희영 조수민 조정식 조휘숙 주영석 지광희 차영조 차종찬 천병태 천신애 천정배 천혜진 최교익 최광호 최라윤 최병일 최선량 최성자 최순례 최영환 최영희 최용철 최윤정 최은규 최정순 최정환 최진섭 최진아 최준영 최재호 최현철 최화영 표대연 탁은지 하명호 하지완 한건희 한의성 함세웅 한정수 함 진 홍사립 홍소연 홍정석 홍충선 황기흠 황수환 황은혜 HARLFINGER OKPUN

### ♥ 단체/기업 회원 ♥

 수협  DROPTOP  KEB 하나은행 광복회 김예진목사기념회 김학규오광심기념사업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요가 스포츠연맹 대한요가협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월혁명회 서울시요가연합회 여천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의사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인쇄출판새롬 전대일사이버노동대학 (주)에너지파트너 지광회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민족평화통일연구소 해림교회 화운차문화협동조합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하는 사람들

| 지 도 위 원     | 김삼웅 문성근 박남식 방국진 양경숙 염락원 유희준 이덕일 임옥상 임진택 임현영 장유식 정동익 정원채 황기흠 |
|-------------|-------------------------------------------------------------|
| 이 사 장       | 김희선                                                         |
| 대 표 이 사     | 송형종                                                         |
| 이 사         | 강정숙 김애영 노명희 박정희 손 윤 신영숙 이민석 이은주 최성자 홍정석                     |
| 감 사         | 이승환 홍미영                                                     |
|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 소 장 : 신영숙 / 위 원 : 강정숙 박창식 이선이 이숙화 이종민 이희수 이은주               |
| 기 획 사 업 분 과 | 위원장 : 남상만 / 위 원 : 이승환 서인아                                   |
| 공 연 예 술 분 과 | 위원장 : 위기훈 / 위 원 : 김지환 박소리 윤현식 이성구 한정수                       |
| 시 각 예 술 분 과 | 위원장 : 이구영 / 위 원 : 김서경 김운성 김종도 이진석 이화섭                       |

| 영 상 예 술 분 과 | 위원장 : 이민재 / 위 원 : 권성국 오재호 임준호 어일선                 |
|-------------|---------------------------------------------------|
| 홍 보 분 과     | 위원장 : 이은주 / 위 원 : 박경덕 박정희 박진호 송아람                 |
| 청 년 미 래 분 과 | 위원장 : 최라윤 / 위 원 : 김소진 김태관 남상혁 박재정 송현석 이동준 최선량 최용철 |
| 대 외 협 력 분 과 | 위원장 : 표대연                                         |
| 대 외 사 업 분 과 | 위원장 : 이길용                                         |
| 전 시 기 획 분 과 | 위원장 : 양혜경                                         |
| 편 집 위 원 회   | 위원장 : 김희선 / 위 원 : 김수미 박창식 송형종 신영숙 최교익 이은주         |
| 사 무 국       | 사무국장 : 임선영 / 간사 : 최우영                             |
| 광 주 전 남 지 회 | 회장 : 명진 / 부회장 : 박태균                               |
| 충 남 지 회     | 회장 : 서경오                                          |

# Café DROPTOP

맛과 감성을 담은 새로운 감각의  
OLD & NEW 아이스탑으로  
시원한 여름을 즐겨보세요



가맹 및 창업문의

**1577-9073**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밥상에서  
수산물을 맛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라지는 **우리바다!**  
사라지는 **우리미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  
하지만, 바다환경 파괴가 계속되면 우리 아이들은  
머지않아 생선이 사라진 밥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이자 미래의 희망 - 바다.  
수협은 바다를 보전하고, 청소하고, 쉬게 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바다환경의 보전을 통해 우리의 오늘과 미래가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바다를 지켜갑니다.



#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호·육성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

## 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전 국민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 수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은 물론 영토 수호, 국토의 균형적 발전, 문화유산 보존, 경관제공 및 지역사회 유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국가 기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72.1%), 10명 중 8명은 이를 유지·보전하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82.5%)하고 있습니다.

\* 어업·어촌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수산경제연구원, 2016)

## ②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 바다환경파괴와 남획 등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는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연근해 어획량의 60%, 49만 톤의 미성어가 생사료로 사용(2016)
- 바닷모래 채취 금지, 냉온배수 배출·간척·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 바다 난개발 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계통판매제도 시행, 휴어제 조기도입 등 적극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③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는 국민과 국가 전체의 공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인 헌법에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